이소연 개인전

Am Lustgarten 1, 10178 Berlin 10178 베를린, 암 루스트가르텐 1번지



❖ 관람안내 / 조현화랑 _부산

전 시 명 : 이소연 개인전 'Am Lustgarten 1, 10178 Berlin' (한글제목 : 10178 베를린, 암 루스트가르텐 1번지)

전시기간 : 2014년 4월 11일 (금) ~ 2014년 5월 11일 (일)

전시장소 : [조현화랑_Busan]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1501-15

개관시간 : 화~일요일 11:00~19:00 (매주 월요일 휴관)

전시담당: 주민영(010-2708-5161) / 신미나(010-2557-9770)

전시문의: [조현화랑_Busan] T. 051.747.8853 / F. 051.742.8852 / E. info@johyungallery.com

웹하드 정보: ID - johyun1990 / PW - 6364 (게스트폴더 내리기 전용)

❖ 작가 소개

수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독일로 건너가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전공을 이어가는 중 2004년 뒤셀도르프의 NRW-포럼에서 주최하는 <엠프라이즈 미술상>을 수상하게 되고, 독일 미술계에서 주목 받기 시작한다.

2005년에는 라벤스부륵에 있는 콜럼부스 예술재단(Columbus Art Foundation)과 연결되면서 <청년작가 예술지원>을 받게 되는 영예도 안게 된다.

2006년부터 이소연은 역사가 깊은 뒤셀도르프의 콘라드 갤러리(Conrad Gallery)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적인 아트페어에 출품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쾰른 아트쾰른, 프랑스 파리의 쇼 오프,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르코, 뉴욕의 스코프와 펄스 아트페어 등 세계적인 아트페어에서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이후 일본 테라도쿄 갤러리, 홍콩, 바젤 아트페어 등에 작품을 출품하여 유럽과 일본, 홍콩 등 국제 미술계에서 꾸준히 인정 받고 있다.

이소연의 작품은 도쿄 CB collection, 독일의 Achenbach Art Consulting, Columbusartfoundation, 스페인 마드리드의 t.VIS.t Communication 등에 소장되어 있고, 그 외 다수의 개인 컬렉터층을 형성하고 있다.

❖ 전시 내용

조현화랑 부산 본관에서는 4월, 독특한 아우라의 자화상을 중심으로 회화작업을 하며 국내외 미술시장과 평단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소연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작가는 한국과 독일, 일본 등을 오가며 여덟 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을 통해 꾸준히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세계 굴지의 아트페어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아 온 작가이다. 한국보다 유럽에서 먼저 주목을 받은 이소연 작가는 역사가 깊은 Conrad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며 유럽과 일본에서 활동을 하였다.

2011년 조현화랑 서울 분관에서의 '사슴숲'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Am Lustgarten 1, 10178 Berlin>라는 전시명으로 2013년 겨울부터 초여름까지 6개월간의 베를린 생활 이후 제작된 회화작품 17여 점이 소개된다. 또한 작품의 배경이 된 실제장소의 이미지를 영상으로 설치함으로써 이소연 작가의 작품 과정속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명인 <Am Lustgarten 1, 10178 Berlin>은 전시개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베를린 돔의 주소를 그대로 옮겼다. 작가는 이를 "어떤 감정적 상태에도 치우치지 않는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특정공간을 의미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누구나가 자신의 삶의 영역적 경계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익명의 한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로 대형 작품을 그려온 이소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베를린 돔을 배경으로 2미터가 넘는 대형작품을 선보인다. 화랑의 메인 전시실에 전시하는 이번 작품은 웅장한 베를린 돔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선 빛을 뒤로한채당당하게 서있는 작가의 자화상을 마주하게 한다.

또한, 비영리 공간인 스페이스K에서 선보였던 모자시리즈와 함께 신작을 포함한 7점의 연결된 작품들을 함께 선보이며 전시의 완성도를 높인다. 14미터의 긴 벽에 전시될 7점의 모자시리즈는 배경을 단색으로 처리하여 반복되는 인물의 차가운 표정과 진열되는 듯이 바뀌는 소품에 더 의미를 부여하여 관객으로부터 강한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 연작에 등장하는 모자들은 작가가 동구권의 몰락한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수집한 모자들로 한때 권위와 위엄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여행객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다시 작가의 오브제로 재탄생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비단잉어> 시리즈의 두 작품은 정착도 여행도 아닌 애매한 상황을 의미하는 6개월간의 베를린 생활의 모호성을 닮아 있다. 잉어의 연못을 배경으로 작업한 이 작품은 극적으로 대비시켜 전시한다. 사실적으로 묘사된 잉어를 배경으로 한 작품과 그와 반대로 구체적인 묘사를 제한하고 잉어의 색감과 움직임을 부드럽게 표현된 두 작품간의 대비는 현실의 공간과 기억 속 공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작품 모두 실제 존재하는 공간을 통해 작업을 했지만 작가의 의식과 기억속에서 다시 재정립되며 모호한 상태를 극적 표현으로 잘 보여준다.

이소연 작가는 자화상을 그리는 작가이다. 날카로운 눈매와 뾰족한 턱,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알 수 없는 표정과 무심한 자태는 다가가기 힘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관객이 알 수 있는 것들은 작가가 입은 옷과 지니고 있는 소품, 뒤로 보이는 배경이 전부이다. 그것은 관객이 작품 속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실마리 이다.

모든 작품이 자화상 인만큼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은 상상 속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작가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고 여행하는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작가가 착용한 장신구와 옷, 갖가지 소품들은 작가의 선택과 경험의 결과물로 그 선택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때로는 웅장한 궁전 앞의 타락한 천사로, 때로는 늑대가 나타날 것 같은 숲 속의 빨간 망토 소녀로, 때로는 속옷만 걸친 맹랑한 로리타로 변신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신들은 작가 자신의 욕망의 투영이자 보는 이의 욕망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작가와 관객은 서로 소통하게 되고 관객은 그 실마리를 찾아 이소연작가의 변신을 반갑게 맞이하게 된다.

작가는 여행에서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을 뇌파감지기처럼 기록하며 그 수집된 기록들은 캔버스 위에서 재구성된다. 관람객은 그림 안에서 단순히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모습을 동기화시키고 자신의 감정선과 연결하여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보도자료 Johyun Gallery

❖ 작가 약력

2007 뮌스터 쿤스터 아카데미 졸업, 마이스터 슐러, 독일1995 수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4 "Am Lustgarten 1, 10178 Berlin", 조현화랑, 부산

2013 "자브라이예의 언덕에서", Space K, 과천

2012 "나의정원", 카이스갤러리, 서울

2011 "사슴숲", 조현화랑, 서울

2010 "어둠을 기억하라!", 카이스 갤러리, 서울

2009 "Spring Fever", 갤러리 테라 도쿄, 도쿄, 일본

갤러리 콘라드, 뒤셀도르프, 독일

2008 카이스 갤러리, 홍콩, 중국

2007 갤러리 콘라드, 뒤셀도르프, 독일

그룹전

2012 "Korea Tomorrow", 예술의 전당, 서울

2012 "미술과 놀이", 예술의 전당, 서울

2011 "달려라, 토끼—현대미술, 토끼로 말하다", 롯데갤러리 본점, 서울

2010 "SHIFT", 갤러리현, 창원

"SHIFT", 조현화랑, 서울

2008 "The Bridge", 가나 갤러리, 서울

"나, 너, 우리", 조현화랑, 부산

보도자료

Johyun Gallery

"자아 이미지: 거울시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7 "젊은 작가 동시대 회화전", 에쎈 미술관, 에쎈, 독일

"재유럽 한국 작가전",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파리, 프랑스

2006 "Face to Face", 뮌스터 시립미술관, 뮌스터, 독일

"면과 색: 회화의 현대 위치", 시립갤러리, 립슈타트, 독일

"마이스터슐러전", 갤쉥키르핸, 독일

"다르게 보기 I, II, III", 콜롬부스 아트파운데이션, 라벤스부륵, 독일

2005 "제거되다", Kunsthalle, 링앤, 독일

"중심적 회화: 오늘날의 예술적 전략", 콜룸부스 아트파운데이션, 라벤스부륵, 독일

2004 "Emprise Art Award 2004", NRW-포럼 문화와 경제/바덴 미술관, 뒤셀도르프/졸링겐, 독일

수상

2005 독일 콜룸부스 아트파운데이션 젊은 작가상 수상

레지던시

2012 캔 아트 파운데이션, 베를린, 독일

❖ 전시 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진제공:조현화랑>을 함께 표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베를린 돔
Oil on Canvas
210 x 200cm
2014
(사진 제공: 조현화랑)



비단잉어 Oil on canvas 120 x 120cm 2014 (사진 제공: 조현화랑) 보도자료 Johyun Gallery



모자Cap
Oil on canvas
110x90cm
2014
(사진 제공: 조현화랑)



오렌지수영복
Oil on canvas
140x180cm
2013
(사진 제공: 조현화랑)